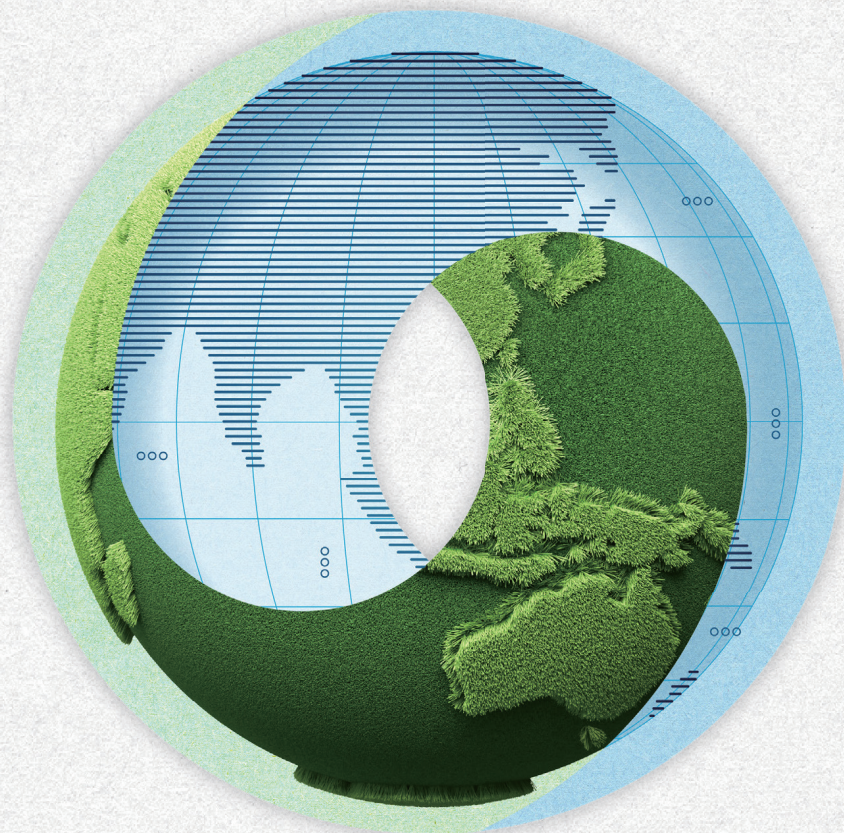


Deloitte Insights

Nov 2024



CFO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가이드 제1편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이끄는 CFO

CFO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

Deloitte Global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지속가능성 공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기업은 자사의 영향력과 리스크,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기반으로 세워졌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다루며, 매우 복잡하고, 심지어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 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최고재무책임자인 CFO는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규제 준수 업무가 아니다. 리더는 이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세 편으로 이뤄진 본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서 시리즈는 외부 감사 및 검증에 대비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모색하는 데 있어 CFO가 맡는 역할과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CFO의 도전 과제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일정이 상이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2027년까지 재무 및 비재무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그림 1). 또한 많은 기업이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같은 국제적 공시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대부분은 기후 정보부터 시작하지만, 그 범위는 사회와 환경 분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림 1.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성 공시 일정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호주			호주 회계 기준 위원회(AASB) 공시 그룹 1 기업	AASB 공시 그룹 2 기업	AASB 공시 그룹 3 기업			
중국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ISSB에 부합하는 공시
홍콩				HK Exchange Climate 공시				
인도	비즈니스 책임 및 지속가능성 공시(BRSR)	BRSR 핵심 프레임워크						
일본			일본 자발적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SSBJ) 기준		의무 SSBJ 기준			
한국					금융위원회(FSC) 기준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됨			
뉴질랜드		기후 표준 1(CS1)						
			온실가스 배출 검증(CS1)					
싱가포르			기후 관련 공시(CRD) 범위 1 및 2 배출					
				CRD 범위 3 GHG 배출				
대만				국제회계기준(IFRS) S1 및 IFRS S2 공시				
					단계적 의무 공시-향후 ISSB 기준			

■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SSB)/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시 협의체(TCFD) 기준 부합
 ■ 기타

이러한 지속가능성 공시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 규제가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지우는 가운데, 대중과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45%가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고 85%가 지속가능성 투자를 늘린 상황에서, 기업은 자사의 영향과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¹

¹ 딜로이트, ESG 공시 벤치마크, 2024

지속가능성 공시는 연간 재무제표를 준비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 부서는 공시 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딜로이트의 전 세계 ESG 공시 벤치마크에 따르면 CFO가 이에 대한 책임자라고 응답한 기업이 32%, CFO와 최고 지속가능성 책임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고 답한 기업이 16%로, CFO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² CFO들은 복잡한 경제 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동시에 주어진 짧은 기간 내에 낯선 분야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업마다 시작점이 다르며, 대부분의 기업이 지속가능성 대응 역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데이터 접근성, 관련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이 높은 수준의 정기적 공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력과 데이터, 시스템에 선행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재무팀에게 이는 익숙한 일일 것이다.

CFO의 당면 과제이자 기회는 바로 비즈니스 거버넌스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내재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최종 목표인 가치 창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² 딜로이트, ESG 공시 벤치마크, 2024



CFO가 자문해야 할 질문

당사에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대기업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CFO는 자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그 시점과 지리적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규제 준수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제도들 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고객사와 공급업체도 유사한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식별하고 공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이 이뤄지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이는 지속가능성 파트너 생태계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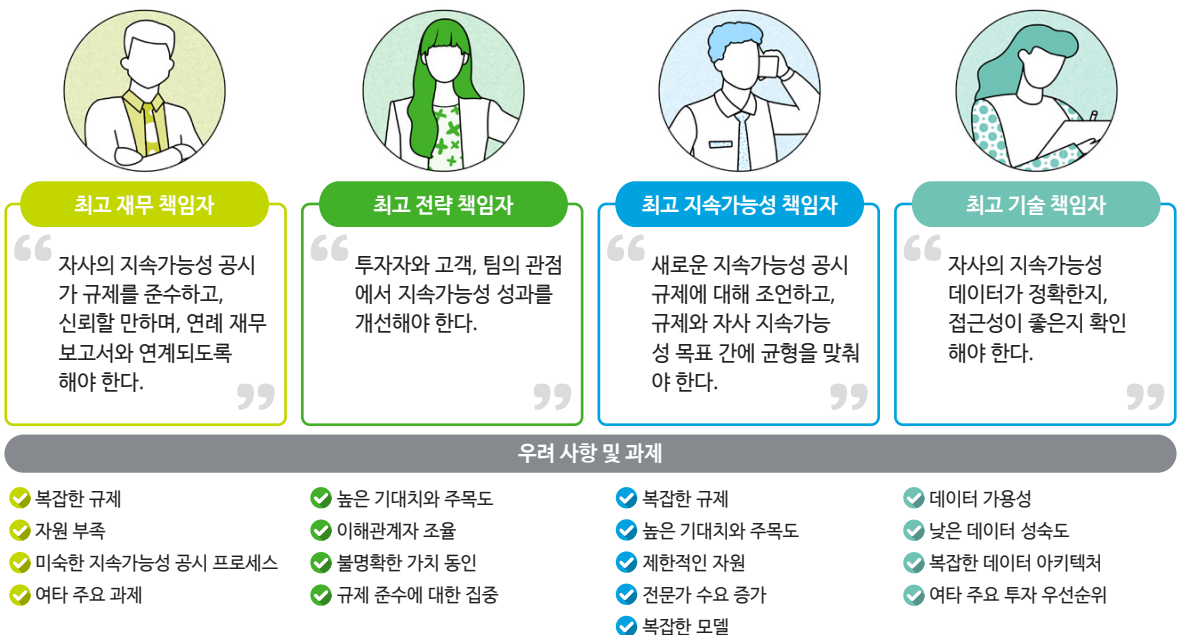
누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가?

주어진 데드라인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 어젠다에 대한 책임 소지와 이를 진행할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준수 업무에 관여하는 리더들은 이 어젠다와 필요한 노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그림 2). CFO가 주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의 견해는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인력과의 정기적인 프로젝트 리듬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화롭게 진행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데 관건이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같이하는가?

이사회와 잠재적 투자자, 고객은 기업의 행보를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할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목표에 맞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기후 위기에서 오는 위험과 기회를 처음으로 자세하게 소통하게 될 것이다. 소통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림 2.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는 서로 다르다



많은 기업에서 법률 고문과 최고 위험 책임자도 함께 관여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CFO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 세계 기업들과 협업해보면서, 효과적인 공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세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 ✔ **인적 자원 및 역량 확보:** 오늘날 기업의 60%는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업무량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예측하지 못하며, 예측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을 두 배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 게다가 데이터, 재무,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들의 주요 역량도 부족하며, 기업 조직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 요건에 낯설어 하는 상황이다.
- ✔ **목적에 맞도록 진화하는 거버넌스 및 통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정밀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성숙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공시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가 비즈니스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의 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데이터 요건 및 관리에 대한 이해:** 데이터 가용성, 일관성, 여러 복잡한 데이터 요건 관리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기업이 여러 부서와 지역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 요건을 통합해야 하는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품질, 활용 방안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공시를 위해 데이터 복잡성과 자동화를 관리하는 자사의 기술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좋은 소식은 많은 기업에게 기존 리소스,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역량이 성장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다. 스마트한 기업은 기존의 재무, 리스크, 전략 역량을 활용하여 이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목표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혁신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 준수가 우선인 기업도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업의 32%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전략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반면, 53%는 이를 주로 규제 준수를 위한 것으로 여긴다.⁴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규제 준수의 일환으로만 여기는 리더는 뒤쳐질 위험이 있지만, 이를 전략적 필수 요소로 여기는 미래지향적 리더는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제 리더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기업이 변화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큼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가”이다.

AI와 지속가능성 전문성을 결합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복잡성 이슈 해결

한 글로벌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속가능성 분야 리더인 딜로이트를 찾았다. 기업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관할권의 공시 기대치를 이해해야 했다. 딜로이트의 ‘서스테인넥스트™’(SustainNext™) 솔루션을 활용하여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과 국제회계기준(IFRS) S1 및 S2에 대해 기업의 현재 공시 현황을 평가했다. SustainNext™는 각 공시 요건에 대한 기존 회사 공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석과 딜로이트 전문가 평가를 결합했다. 이렇게 제공된 인사이트는 해당 기업의 공시 준비 로드맵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는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개선, 재무적 영향 및 시스템 개선 전반에 걸친 업무 흐름에 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됐다.

³ 딜로이트, ESG 공시 벤치마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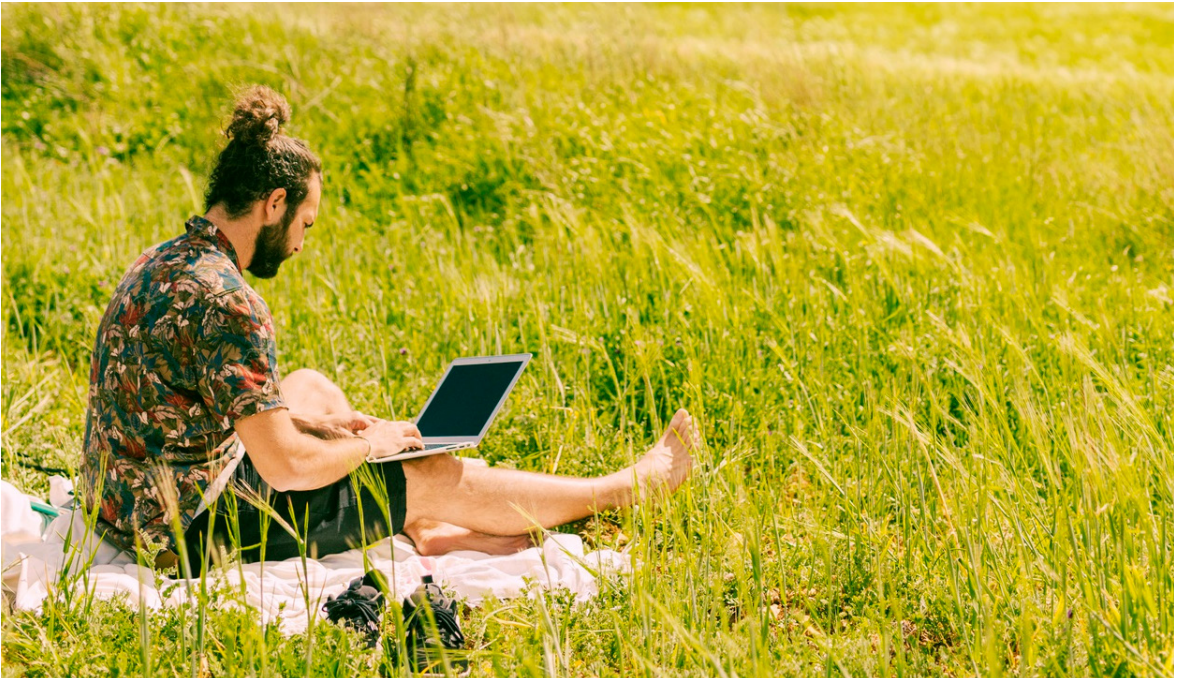
⁴ Ibid.

현황 파악 및 시작점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요건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성숙도가 제각기 다르다. CFO가 현재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다음과 같다.

- ✔ 당사의 준비 현황과 유관 제도의 공시 요건을 모두 명확히 이해
- ✔ 데이터, 인적자원, 절차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 파악
- ✔ 기업 내부의 기존 역량과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새로운 선도적인 관행과 전문가의 도움 모색
-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및 성과에 지속가능성 공시 고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편은 기업이 공시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필수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해 예리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투자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감사와 검증에 대비된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무 조직이 갖는 동일한 수준의 철두철미함과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올바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 큰 사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다. 기본기를 갖추으로써 기업은 규제 준수를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담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딜로이트 전문가

ESG 공시, 전략, 평가대응, Assurance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SG 전문가



조남진 파트너

ESG 통합서비스그룹 리더

☎ 02 6676 1997

@ namcho@deloitte.com



Nicola Weir 파트너

CSR & Global Corridor | ESG 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3178

@ nweir@deloitte.com



김병삼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탄소중립, 기후기술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277

@ byungsakim@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연경희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3096

@ junyoo@deloitte.com



이옥수 파트너

ESG 전략, 공시 및 금융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425

@ okslee@deloitte.com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454

@ kyhuh@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